

문화광장



김준기  
미술평론가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는 의외였다. 숫자로는 여당의 승리가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길 선거를 지고 말았다는 해석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누적인 지역주의 구도를 깨지 못한 한국 정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이다. 한계의 이면에는 새 돌파구도 보인다. 5극3특의 국가 재편 기조에 따라 근본적인 혁신의 계기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정부 통합의 새책이 돌아나기 시작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탄생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수도권 중심주의와 영남패권주의를 극

5극3특 시대의 지역정치

복하는 역사적 출발점을 맞았다. 대구경북과 경남이 수십 년간 누적된 기성 권력을 넘어설 질호의 기회를 놓쳐 안타까움을 자아낸 반면, 전남광주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정치적 결단으로 통합 선거를 치렀다. 전두환이 갈라놓은 광주와 전남이다. 죽음으로써 지켜내고자 했던 최후의 보루인 전남도정을 점령하면서 5·18 시민군을 학습한 군부정권은 광주와 전남을 갈라 분할통치의 멍을 놓았다. 광주와 전남만의 일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보다 더 길게 이어진 갈라치기 행정으로 광주와 전남,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과 오랜 역사 속에 쌓인 공동체 도시의 유기체성을 상실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정부는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논의는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자리 잡아 전남광주의 새 산업 동력을 창출하는 일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정치적 슬로건에 머문 문화예술도시 정체성을 민관협치의 정책과 사업으로 명실상부하게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경제와 문화, 두 가지가 핵심이다. 먹고사는 것과 문화로 정체성을 다져가는 일, 두 가지를 챙김으로써 한국의 지방정치는 더 낮게 생활 속으로 파고든다. 제주도는 어떠한가? 노무현 대통령이 4·3 명령들 앞에서 허리 숙여 사죄한 이래 제주도는 민주당 일색이다. 한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과 결과는 영남과 호남의 사례에서 답이 나온다. 위대한 자연의 힘을 가진 제주도의 지정학적 지위는 70만명의 적은 인구로도 특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인 발전을 토대로 한 피지컬 인공지능의 신세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합의 지역정치 시대가 본격화하는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부의 특별함은 주어진 것 이상의 특별함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개발주의 환상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경제 상태의 '평화의 섬'을 구현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항을 새로 지어 숫자 관광으로 갈 일이 아니다.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줄이고, 행복하게 일상을 꾸리는 도민이 부러워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문화관광의 가치 지향성이 필요하다. 제주-오키나와-타이완의 평화의 섬 체인을 연결하는 평화예술을 통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 5극3특의 지역정치 시대를 맞아 제주도정부의 정치 전략이자 당면 현안이다.

사설

민생추경 일괄 삭감 방식 재원 확보 안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민생 추경 3000억원'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도민들이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제주도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취임 즉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제주자치도가 4월에 이어 다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 고유가피해지원금 추경 편성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분 중 일부인 1079억원을 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측해 냈다. 제주자치도는 나머지 1900억원을 올해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과 조만간 마무리될 지난해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

여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경안을 편성하거나 심지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논란이 된 부분이 세출 구조조정이다. 특히 올해는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오영훈 지사의 공약사업 등을 위해 보조금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예산들도 일괄 삭감·조정했다. 올해 상반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별 예산을 일괄 조정해 민생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순리에도 맞지 않다.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당선인은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 3000억원이라는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한 핀셋 지원이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학대받는 노인, 사회안전망 촘촘히 해야

제주지역에서 학대받는 노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정이란 특성상 학대 피해 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3년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567건이다. 이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피해노인은 38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128명, 2024년 132명, 2025년 127명으로 당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시설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아들과 배우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학대 피해노인 대

부분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으로 4명 중 3명꼴로 피해자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동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신체적 학대 329건, 정서적 학대 316건, 경제적 학대 28건, 성적 학대 5건, 방임 162건 등이다. 특히 여러 학대 행위를 동시에 수반한 중복 학대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서도 노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엔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해 노인의 존엄, 신념과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학대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를 해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경의식 확산이 절실하다.

열린마당

방심이 부르는 물놀이 사고, 안전수칙이 '답'



고상일  
화북남성의용소방대장

여름이 찾아오면서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 등 물놀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놀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다. 해수욕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안류와 높은 파도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 잔잔해 보이던 계곡도 집중호우 이후에는 급류로 변할 수 있다. 또한 하천이나 저수지의 경우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운동을 실시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충분히 몸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해야 한다. 또한 수영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보호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살피고 위험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물놀이 중 위급상황이 발생했다면 무리하게 구조에 나서기보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물에 뛰어들기보다는 로프나 구명환 등 주변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행복한 여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뉴스-in

'고독한 미식가'도 반한 제주의 맛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주연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를 주인공으로 하는 제주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큐슈 지역 관광객 유치에 RKB 마이니치방송과 협력해 제주의 음식과 자연을 소개하는 1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출연자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주연 배우 마츠시게 유타카와 큐슈 출신 배우 이계타 히로에이며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 속 미식을 주제로 신선한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저녁 분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방송 이후에는 RKB 마이니치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공개. 오소범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가 임산부의 민원 대기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부보건소와 표선·성산보건지소 민원실에 '임산부 우선 창구'를 본격 운영. 15일 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 우선 창구' 운영은 올해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임산부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는 짧은 대기도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선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언급. 백금탁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백도라지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옹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증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모지관리·모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